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취재

체계적인 작업여건으로 인력문제 해소한 부흥양돈단지

- 취재 : 조진현 -

총 사육두수 11,000두의 경남 창원 부흥양돈단지(대표 하태식)에는 분만사 3명, 임신교배사 3명, 자돈·육성·비육사 2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육두수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부흥단지의 생산성적은 PSY 23두 이상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농장내 업무의 진행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직원들 또한 97년 양돈단지 설립 이후 5년여 동안 단 한 명만이 그만 두었을 뿐 모두 부흥단지 식구로 남아있다. 인력관리에 성공적인 양돈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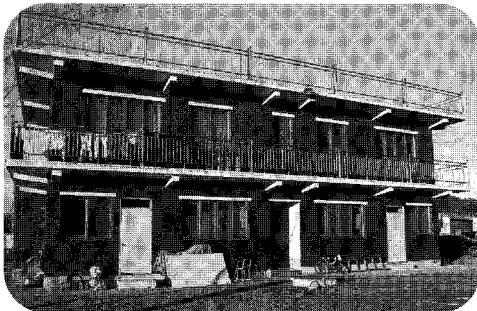
일요일은 3주에 한번씩만 일하고 있으며, 타 농장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여 6시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농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사원이 많은 것도 아니며, 직원들의 평균 연령 또한 40대로 다소 높은 편이다.

“직원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정확히 안다”

실제 농장을 총괄하고 있는 이연규 농장장(41세)은 이러한 인력관리의 핵심은 ‘철저한 주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업무 분장’이라 밝힌다.

농장 작업은 주간관리를 넘어서 ‘각 요일별 시간관리’까지 정확히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다. “직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농장장의 말이다.

부흥단지의 경우, 이유는 목요일, 교배는 월, 화, 수요일에 집중, 분만은 목, 금요일에 주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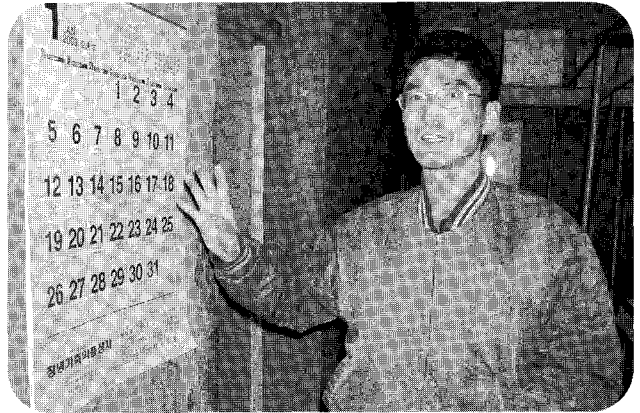
▲ <사진 1> 농장내 직원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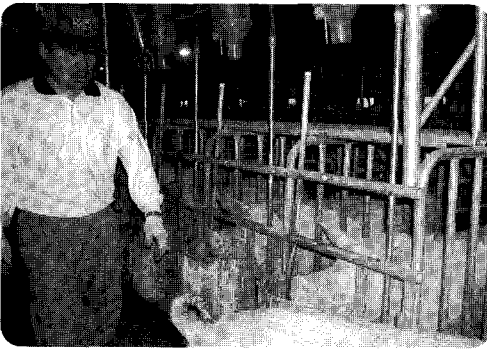
▲ <사진 2> 직원 휴게소



▼ <사진 4> 돈사내 달력에는 각 일자 밑에 시간과 주요 업무가 적혀 있다. 이연규 농장장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3> 취재 당일 돈사 수세와 웅돈을 이용한 발정체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직원들.



견치(이빨 자르기), 꼬리 자르기 작업이 실시된다.

이러한 모든 집중 작업들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인다.

“날짜별, 시간별로 주요한 작업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항상 그 자리에

없이 모든 직원들이 신생 자돈처리를 위해 분만사에 모여, 각자가 맡은 바대로 한 사람은 주사기를, 한 사람은 표시펜을 들고 작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몇 팀이 순식간에 공동작업을 마친다.

매일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집중적인 공동작업 실시



또 각종 백신은 주로 수요일에, 거세는 화, 금요일에, 전출은 토요일에 주로 이뤄진다.

그리고 월, 화, 수요일에 태어난 자돈은 목요일에, 목, 금, 토, 일요일에 태어난 자돈은 화요일에 몰아서 철분주사,

전 직원이 당연히 모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 농장장은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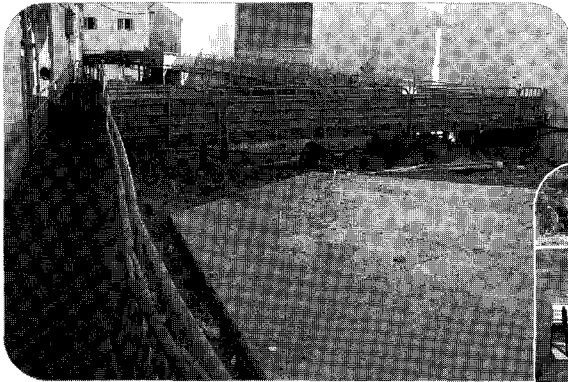
또 자기가 맡은 바가 이미 정해져 있어 모든 일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어김

부흥단지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앞서 말한 대로 분만사, 임신교배사, 자돈육성비육사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침 일찍 각자 맡은 부분을 체크하고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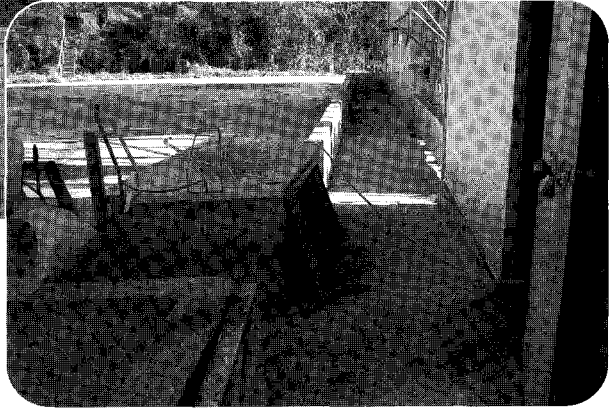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사진 5> 쇠 파이프로 된 이동통로에 천을 대어 돼지의 이동이 더욱 빠르게 했다.

▼ <사진 6> 각 돈사마다 연결되어 있는 돼지 이동통로(시멘트 통로)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아침식사와 간단한 미팅을 하고 오늘 일어날 주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곧 이어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농장 주요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작업이 실시된다. 요일별로 이뤄지는 단체작업들이 모두 이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점심시

간은 오후 2시까지 1시간 30분이며, 2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소독·수세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로 본다. 또 월, 화, 수요일 오전 8시, 오

후 5시가 되면 전 직원은 교배사에 모여 함께 교배 작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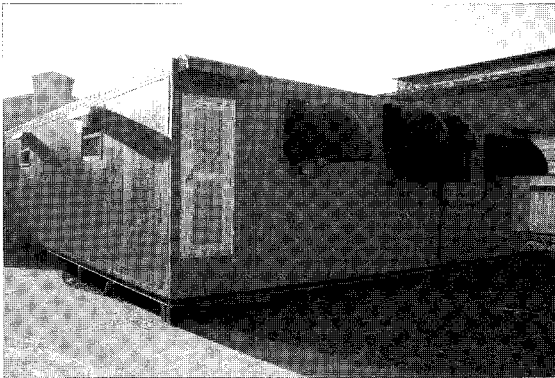
일과는 여름철 한창 더위로 종부를 기다리는 며칠을 빼고

<표 1> 부흥양돈영농조합법인 주간 관리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만사		철분 1.2차 거세 백신(마이코)	유도분만	유도분만 이유 자돈 전출	철분 거세 백신(마이코)	대기돈 전입 스톨 전입		
				← 집중 분만 →				
자돈사	사료 배합교체	위축돈 관리 이유자돈 이동 세척	백신 (호흡기)	이유자돈 전입			기본 관리	
임신사		임신진단		이유모돈 전입		임신돈 전출		
		← 집중 교배 →					주변 정돈	
육성비육사	비육돈 전입	육성돈 전입 위축돈 관리			세척			
			← 비육돈 출하 →					
공 동	헨, 물탱크, 자동급이기 점검						소독1회/일	



▲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조, 한 겨울에도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 신규로 제작한 컨테이너 초기 이유자돈사

는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근무시간은 타 농장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인 것이다.

흐름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비결

이연규 농장장은 이러한 원활한 직원관리의 포인트를 “흐름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업무처리”라고 말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는 것을 중요시한다. “일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일을 위한 일, 쓸데 없는 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 농장장

은 세세한 실수나 잘못보다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돼지가 한 마리 죽었다거나 하는 실수가, 자기가 담당하는 자리를 비우거나 해야 할 일을 잠시 잊은 것보다 커 보이지만 농장의 전체적인 관리상 후자에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이연규 농장장은 15년의 양돈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작업 시스템을 2, 3년에 걸쳐 구성했다.

“직원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맡은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난 이를 확인할 뿐이다”라는 것이 이 농장장의 말이다.

부흥단지의 현재 인건비 수준은 출하두당 약 1만원씩으로 국내 평균 8,000원~20,0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타 농장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인력이 많은 두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부흥단지는 월급이 많다고 보다는 ‘일하기 괜찮은’ 농장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한 달에 2일 이상 일요일에 쉴 수 있으며, 퇴근시간이 6시로 거의 일정하다.

또한 일정표에 따라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뿐, 오늘은 이것해라, 저것해라 중간중간 간섭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오늘 내가 무얼 할지를 나 스스로가 알고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한다.



많은 일 때문에 혼자 힘에 부치지도 않는다. 힘들고 일이 많은 작업들은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퇴근시간이 일정하고, 서로 간의 마찰이 극히 드물다.

직원들이 공동작업을 할 때에도 많은 말이 필요없다. 서로 할 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키거나 의견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서서 최선의 배려를 다해야

이러한 일의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부흥단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세세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것은 돼지의 이동.

이동작업만 없어도 '옷에 똥 묻을 일 없다'는 것이 양돈장이다.

부흥단지는 <사진 5>, <사진 6>과 같이 돈사와 돈사간은 통로를 만들어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 완전히 돼지가 외부

를 볼 수 없을 때 앞으로 더 잘 나간다는 것을 고려, 사진과 같이 시멘트로 통로를 만들거나, 쇠 파이프로 된 이동 통로에 플라스틱 보드를 대서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40마리 1차를 출하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으로 인해 부흥단지의 경영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흥단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성과급 제도'이다.

현재 농장 성적인 PSY 23두, MSY 21.8두를 기준으로 더 높은 성적을 올렸을 경우 0.5두 단위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장 운영의 기본 성적 외에 더 이상의 성적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는 개념이다.

이 농장장은 최근 국내 양돈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을 "닭과 달걀 싸움"이라고 말한다. 농장주는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원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주는 만큼 일한다',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다'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반대편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농장주는 수입을 다시 직원들에게 환원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양돈**



▲이연규 농장장

은 불과 10분. 자돈 400마리를 이동시키는데는 1시간이면 끝난다. 이외에도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그만 배려들이 농장 곳곳에서 눈에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돈가하락과 높은 부채비율, 사료여신